

따뜻함이 자람이 되는 가정!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핵심 가치는 내가 얼마나 누리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보고,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핵심 가치는 주변을 돌아보는 시선과 관점을 약화시키거나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정 안에서도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은 나만 예배 잘하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그만인 모습들 말입니다. 또한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이웃,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친척들에 대한 관심도 약화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을지라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것보다 나음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마른 떡은 화려하고 풍요롭진 않으나 평범한 것, 일반, 일상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제육은 화려하며 풍성하고 부요하고 값지며 귀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심플합니다. 풍성하고 부요한 것을 추구하면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보다, 비록 화려하지 않고 평범할지라도 화목하고 따뜻하게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본성은 더 많이 누리고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유와 풍성함을 지키려고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지켜야 하지 나누는 것에는 자연스럽게 인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되고 인간관계 안에서 따뜻함은 점점 사라지고 날카롭고 예민해지며 갈등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반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본성은 마른 떡 한 조각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작은 것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진 않아도 내가 가진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은 오히려 부담 없이, 미련 없이 쉽게 나누게 되는 모습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땐 인색해지고 주변을 살피지 못하지만, 작고 일상적이라 여겨지는 것에는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모습! 우리 가정, 가문은 어떤 지혜를 따르는 것이 합당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서로 돕고 나누며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나만 잘 먹고 잘사는 삶,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복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꺼이 내 것을 나누고 함께하며 돕고 섬김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이와 같은 삶을 보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모두 보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 돕고 섬기며 나누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 가문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친척들을 두루 살피며 기꺼이 관심을 갖고 돕고 섬기며,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그래서 늘 우리 가정으로 인해 주변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우리 가정의 자람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맏도는 따뜻함이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 곳곳에도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의 가문으로 뿌리를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

추석

가정예배

◆◆◆ 2026년 추석 가정예배 순서 ◆◆◆

예 식 사 인도자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해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추석 명절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 310장) 다같이

1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왜 내게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민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흑녘에 또 주님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 도 말은이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족 한사람, 한사람을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연약하여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쉽게 일이 풀리기보다 막히고 문제가 생기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큰 장벽으로 막힌 듯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먹먹하여 마음 둘 곳 하나 없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함께 웃고 울어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가족, 가문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가문! 조부모와 부모, 형제와 자매, 친척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본문 잠언 17장 1절 다같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 씬 따뜻함이 자람이 되는 가정! 말은이

기 도 설교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만을 돌아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웃과 가족, 가문을 살피고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되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식구가 있다면 나의 일처럼 여기며 기도하고 힘을 다해 함께하기를 힘쓰며 살게 하옵소서. 제육이 가득하진 않을지라도 마른 떡 하나라도 기쁨으로 나누고 그로 인하여 함께 웃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가문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가족과 가문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요 가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찬 559장) 다같이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